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6, Vol. 11, No. 4, 743-765

## 연인관계의 질투 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 대처반응 및 성차

-충동성, 자존감 및 성역할 태도를 중심으로-

이 수 경<sup>†</sup>  
경기대학교

강 해 자  
전북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연인관계의 질투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 대처반응 및 그 성차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또한 충동성, 자존감 및 성역할 태도가 정서 및 대처반응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그 영향관계는 어떤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523명에게 질투상황을 묘사한 짧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정서와 대처반응을 조사하였다. 또한 충동성, 자존감 및 성역할 검사를 실시하였다. 정서와 대처반응 평정치를 토대로 요인분석을 하였고, 요인별 성차를 검증하였다. 정서 및 대처반응과 개인차 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개인차 변인들이 정서와 대처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정서반응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분노/공격 정서와 상실/우울 정서의 두 요인이 추출되었다. (2) 대처반응에 대한 요인분석에서는 공격적 대처, 문제해결적 대처 및 수동적 대처의 세 요인이 추출되었다. (3) 질투 상황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분노/공격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였다. (4) 여성은 남성보다 공격적 대처와 수동적 대처 둘 다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5) 충동성과 분노/공격 정서, 충동성과 공격적 대처 간에 각각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고, 자존감과 상실/우울 정서, 자존감과 공격적 대처의 부적 상관이 각각 유의하였다. (6) 충동성은 분노/공격 정서, 공격적 대처 및 수동적 대처에 영향을 주었고, 여성성은 분노/공격 정서, 상실/우울 정서, 공격적 대처, 문제해결적 대처 및 수동적 대처에, 자존감은 상실/우울 정서, 공격적 대처 및 문제해결적 대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들 중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공격적 대처를 더 많이 한다는 점과 여성성이 분노/공격 정서와 공격적 대처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상반된 것으로서 추후 더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질투상황, 정서, 대처반응, 성차, 충동성, 자존감, 성역할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수경,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산 94-6, E-mail: 0708soo@hanmail.net

친밀한 애정관계는 당사자들에게 소속욕구와 성적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기능을 하며, 그 관계가 위협을 받거나 붕괴될 경우 정서적 고통이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학에서 중요하게 연구되는 대인관계 영역이다. 예컨대 남녀의 애정관계에 제삼자가 개입되는 갈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계 당사자들은 의심, 거부, 적의, 분노, 상실의 두려움, 정신적 고통, 기만당함, 복수심, 분개, 앙심, 원한, 격앙, 비애, 무기력, 흥분 및 좌절 등의 질투 관련 정서들로 심적 고통을 받는다(Smith, Pine, & Hawley, 1988).

이러한 질투상황은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기가 쉽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42.1%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법원행정처, 1995; 통계청, 1989, 1996). 이와 같은 양상은 기혼 상태뿐 아니라 미혼의 사랑관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삼자간 갈등적 애정관계가 원인이 되어 폭행이나 살인 등의 강력 범죄가 발생하는 사례들도 빈번하다. 삼자간 애정관계에서 발생하는 질투가 배우자간의 폭행 및 살인 사건의 55% 이상에서 관여된 심리적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남자가 남자를 살해한 범죄 행위의 최소한 20%는 여자를 둘러싼 삼각관계가 그 원인인 것으로 보고된 바도 있다(Buss, 1966).

이처럼 친밀한 애정관계에서의 질투는 개인의 정서생활과 건강 및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교현, 2004). 즉, 질투로 인해서 상술한 바의 다양한 부정적 정서들로 고통받을 수 있고, 이러한 부정적 정서 경험은 신체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뇌 속으로의 혈류의

유입, 손의 떨림, 과잉호흡, 현기증, 심박 증가, 수면 곤란 등은 질투 상황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생리적 반응이다(김교현, 2004). 또한 질투는 관여된 당사자들의 관계 해체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폭행, 살인 혹은 자살과 같은 파국적 결말이 발생하기도 한다. 요컨대 질투는 건강심리학적 및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애정의 질투상황에서 폭행이나 살인 등의 공격적 행동에 개인적 성격특성 특히, 충동성, 자존감 및 성역할이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충동성이 강한 사람은 조급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하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의사결정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Barratt & Patton, 1983; Eysenck, 1977), 비충동적인 사람보다 분노를 유발시킨 사람에게 더 공격적이라는 연구(Hynan & Grush, 1986)들로 미루어 볼 때, 질투상황에서 충동성이 강한 사람이 충동성이 약한 사람보다 분노를 더 경험하고, 흥분 수준이 더 높고, 공격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우울과 불안을 많이 경험하고, 자기 혐오적이고, 자기 무가치적이다(Rosenberg, 1986). 이들은 또한 자신을 보호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는 데 관심이 많으며(Sedikides, 1993), 특히 자존감이 낮은 남자들은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O'Keefe, 1998). 이러한 연구 등을 살펴볼 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질투상황에서 부적절한 폭력행동 및 공격행동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편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공격적인

데,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여자보다는 남자의 성역할이 위협하고 용감한 일을 책임지는 것이고 (Barry, Josephson, Lauer, & Marshall, 1976), 이러한 성역할에 부응하여 남자는 남성으로서의 정체감을 용감성과 공격적 행동을 보임으로써 과시하는 데 기인하는 것 같다. 여자는 더 감정적이고, 남을 보살피는 데 관심이 있고, 정서적 측면에서 많이 울지만, 분노는 덜 표현한다(조혜자, 2001; Deaux & LaFrance, 1998).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애정의 질투상황에서 남성성자가 여성성자보다 공격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고, 공격적 대처를 더 많이 할 것이며, 또한 여성성자가 남성성자보다 우울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수동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할 것임을 시사한다.

요컨대 삼자간 애정관계가 발생하면 흔히 질투 관련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직·간접 원인이 되어 관계가 붕괴되거나 혹은 공격행동을 비롯한 범죄적 행동 등 다양한 대처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질투 관계가 발생할 때 당사자들이 경험하는 정서나 대처반응에는 일반성도 있겠으나, 성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대식, 2002). 또한 앞에서 언급한 충동성, 자존감 및 성역할 같은 개인차 변인들이 애정의 질투상황에서 경험되는 정서와 대처반응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국외의 자료이고 국내연구는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자료를 통해 이러한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삼자간 애정의 질투관계에서 경험하는 정서와 대처반응의 내용을 알아보고, 이들

정서와 대처반응에 성차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 정서와 대처반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개인차 변인들인 충동성, 자존감 및 성역할과 정서 및 대처반응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간략히 개관하기로 한다.

삼자간 갈등적 애정관계에서 대표적으로 경험되는 정서는 질투다. 질투는 여러 가지 감정의 복합체로 볼 수 있다. White(1981)에 의하면 질투는 관계에 대한 위협과 자기존중에 대한 위협에서 생기는 사고, 감정 및 행동의 한 복합체이며, 여기에는 대개 공포, 분노, 슬픔 및 증오 등의 감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Sharpsteen(1993, 1995)은 질투상황에서 슬픔, 열등감, 불안정감, 미래의 불확실성, 두려움, 당황, 복수심, 상대방에 대한 분노, 위협감, 친밀감의 갈구, 배신감, 압박감, 부인, 자존감 고양 및 끝내기 같은 감정들과 대처반응들이 혼재되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질투의 발생에 있어서 상실이 핵심적 요인인데, 인간관계에서 경험하는 상실이나 상실에 대한 기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보상의 상실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존중의 상실이다(White, 1981). 여기에서 보상은 사랑, 애인관계, 함께 지냄, 성 활동 등으로, 이러한 보상의 상실은 우울을 일으키고, 자기존중의 상실은 분노를 일으키며, 관계보상의 상실과 자기존중의 상실 모두에서는 불안을 경험한다(Mathes, Adams, & Davis, 1985).

Mathes 등(1985)은 사람들이 상대의 직접적 거절이나 불가피한 지리적 격리 같은 사건들의 결과로 상대를 상실할 때보다 제삼자에게 상대

를 빼앗기게 될 때 더 많은 질투와 분노를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그 제삼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일 때보다 가까운 친구인 경우에 더 많은 심적 고통을 느낀다(홍대식, 2002). 관계에 대한 의존도 질투경험에 중요하다. Berscheid(1983)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상대와의 관계에 대해 더 많이 의존하는 사람일수록 질투를 느끼기가 더 쉽다고 하였다.

한편 질투의 경험에서 남녀는 성차를 보인다. 질투 경험에서 남자들은 대개 질투 감정 자체를 부인하고, 여자들은 질투의 감정을 인정한다(Clanton & Smith, 1977). 그리고 남자들은 애정상대의 성적 활동에 질투를 강하게 느끼는 반면, 여자들은 상대의 제삼자에 대한 정신적 관여에 질투를 강하게 느낀다(김교현, 2004; Buss, Larsen, Westen, & Semmelroth, 1992).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발견이 응답형식의 측정오류라는 지적도 있다(DeSteno, Bartlett, Braverman, & Salovey, 2002). 즉 남녀 모두 성적 외도 상황에 더 질투를 많이 느낀다는 것이고, 이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반복연구에서도 지지되었다(황재원, 허태균, 한성열, 2004).

Buunk(1982)는 남녀 모두 관계에 대해서 매우 의존적일 경우에 질투를 더 느낄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실제의 질투경험에는 관계에 대한 의존성 자체보다도 관계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서 성차가 있는 것 같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White(1981)의 연구에서 여자들은 현관계가 종결될 경우에 다른 대안관계가 부족하다고 예상할 때 질투를 더 경험하였다. 이에 비해 남자들은 상대의 판단에 의해 자신의 자

존심이 하락할수록 질투를 더 경험하였다.

질투상황에서의 대처반응 또한 다양하며 성차가 존재한다. Clanton과 Smith(1977)에 의하면 남자들은 분노하고 폭음을 한다거나 폭력으로 반응하는 반면, 여자들은 울거나, 잠을 자지 못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반응하고, 또 남자들은 상대와 경쟁자 둘 다를 비난하지만, 여자들은 자신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남자들은 제삼자인 경쟁자와 경쟁하려 하고, 여자들은 남자에게 매달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관찰들은 일반적인 성역할 고정관념들과 일치된다. 즉 질투에 대해 남자들은 적극적, 분노적 및 경쟁적 방식으로 반응하며, 여자들은 의존적이고 자기차별적인 방식으로 반응한다. 이와 유사하게 Shette-Neuber, Bryson 및 Young(1978)에 의하면, 질투상황에서 남자들은 ‘자신에게 분노한다’, ‘술을 마신다’, ‘제삼자를 언어적으로 위협한다’ 등의 반응을, 여자들은 ‘혼자 있을 때 운다’, ‘상대에게 자기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려 노력한다’, ‘상대에게 자기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반응을 보고하였다. 즉 남자들은 적극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여자들은 소극적이고 관계유지적으로 반응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삼자의 갈등적 애정관계에서 경험하는 정서와 대처반응은 다양하고 성차가 있다. 한편 애정의 질투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와 대처 및 그 성차에 충동성, 자존감 및 성역할 태도 등의 개인차 변인이 유관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해서 약술하기로 한다.

White, Moffit, Caspi, Needles와 Stouthamer-Loeber(1994)는 충동성을 행동적

충동성과 인지적 충동성으로 분류하였다. 행동적 충동성은 탈억제 및 통제불능 행동과 같은 행동의 통제부족과 관련된다. 인지적 충동성은 인지구조 내에서 적절한 방향 전환과 통제 및 계획이 필요한 수행능력과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충동성은 행동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성격특성으로, 충동성이 강한 사람은 조급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하며 부주의한 의사결정을 하며 모험상황을 더 선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충동성이 강한 사람들은 무계획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반응은 빠르지만 잘못된 반응을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인다(Barratt & Patton, 1983; Eysenck, 1977). 즉 충동성은 활동제지 능력 부족, 직접적인 만족추구, 인지적 수행의 열등성 같은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탈선적이고 활동지향적인 행동을 통해 정서적 갈등을 외부로 표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Messer, 1976; 정태연, 1992에서 재인용). 이러한 연구들에서 유추한다면, 삼자간 갈등적 애정관계에서 충동성이 높은 사람들은 충동성이 낮은 사람보다 공격적 대처를 더 많이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존감도 질투상황에서의 정서 및 대처와 연관할 수 있다. 자존감은 자아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자기 존경의 정도, 그리고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이다(Rosenberg, 1965).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외부의 평가나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자신감이 있다. 이에 비해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대인관계가 좋지 않고, 자신감과 지도력이 부족하고, 우울과 불안을 많이 느낀다. 이들은 또한 긴장에 대한 대처능력이 미약

하고 어려움에 대한 인내력이 낮으며, 이성교제에서 상대의 거절에 민감하고, 상대의 부정적 반응에 쉽게 적대적이 된다(Bellavial & Murray, 2003). O'Keefe(1998)의 연구에서도 자존감이 낮은 남성들이 연애평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구철(2000)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폭력행사를 덜 하며,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여, 위의 연구들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자존감에 따라 공격행위에 대한 상반된 결과가 있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미약한 대처능력과 인내력 부족으로 인해 공격적 행동을 나타낼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성역할 태도에 따라서 경험하는 정서나 대처반응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성역할 태도란 남녀가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회적으로 다른 역할을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관념으로, 사회적 관계의 모든 부문에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규정하는 데 사용되는 일종의 거대도식이다. Bakan(1966)은 남성성은 행위주체성과, 여성성은 친교성과 연관하다고 하였으며, Parsons와 Bales(1955)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도구적 행동과 표현적 행동으로 개념화하였다. 그러나 Bem (1974)은 타고난 성별에 관계없이 심리적으로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을 공유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양성성 개념을 제안하였고, 성역할 검사(BSRI)를 개발하여 사람들을 양성적, 남성적, 여성적, 미분화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네 가지 유형 중 양성성자들이 사회관계에서 더 유능하고, 융통성이 있으며, 매력적이고(Heilbrun, 1981; Schneider & Becker-beck, 1989), 양성성이 우

울, 불안 및 스트레스 수준과 역상관(O'heron & Orlofsky, 1990)을 보이고,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나고(Brems & Johnson, 1987), 높은 자아 발달 수준과 높은 자존감(Schwartz & Robin, 1987)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들도 있다 (Anderson, 1986; Neju & Neju, 1987; O'Heron & Orlofsky, 1990; Ravinder, 1987; Shaw, 1982). 어쨌든, 성역할 태도는 사회화 과정에서 학습을 통해 형성되며, 흔히 강하고, 유능하고, 경쟁적이고, 지배적이고, 거칠고, 무덤덤하고, 악의적인 것을 남성적인 것으로, 부드럽고, 점잖고, 직감적이고, 수동적, 비공격적인 것을 여성적인 것으로 본다. 요컨대 남성성자가 공격적이고, 여성성자가 비공격적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애정의 질투상황에서 남성성자가 여성성자보다 분노나 공격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하고 공격적 대처를 더 많이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에 따라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연인관계의 질투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와 대처반응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연인관계의 질투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와 대처반응의 성차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충동성, 자존감, 성역할 태도, 질투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 및 대처반응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연인관계의 질투상황에서 충동성, 자존감 및 성역할 태도가 정서와 대처반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인가?

## 방 법

### 참가자

예비 질문지 실시에 대학원생 40명(남학생 20명, 여학생 20명)이 참가하였고, 본 질문지 실시에는 대학생 523명(남학생 266명, 여학생 257명)이 참가하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남자 22.1세, 여자 20.3세였다.

## 도 구

### 정서와 대처반응 질문지

연인관계의 질투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서와 대처반응의 대표적 목록을 얻기 위하여 예비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이 질문지에는 삼자간 갈등적 애정관계를 묘사한 간단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묘사된 상황에서 조사대상들이 경험할 수 있는 정서와 대처반응들을 자유롭게 기술하게 하였다. 최대한 간략한 상황으로 제시된 시나리오의 내용은 “나와 A는 연인 사이이다. 그런데 최근에 나는 A가 B라는 여성과 사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로 기술되었다. 이 상황에서 ‘나’를 응답자 자신이라고 가정하고서 응답자가 느낄 수 있는 감정들과 취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 여러 가지 대처 행동들을 기술하게 하였다. 이 개방형 질문지에서 얻어진 반응들을 분석한 결과, 삼자간 갈등

등적 애정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서로는 배신감, 분노, 증오 등 119개의 반응이 얻어졌고, 대처로는 운다, 참는다, 때린다 등 151개의 반응들이 얻어졌다. 이 응답내용들 중에서 빈도가 높은 16개의 정서반응과 32개의 대처반응을 표집하여 본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질문지에서는 삼자간 갈등적 애정관계를 묘사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조사대상이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정서와 대처반응들을 각각 7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7점: 매우 그렇다)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 충동성 검사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충동성보다는 행동적 충동성을 측정하고자 행동적 충동성 범주에 포함되었던 다양한 측정 도구들 중 Eysenck(1984)의 충동성 척도를 이현수(1985)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윤재선, 2001). 이 척도는 일반적인 충동적 활동과 무계획적 행동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3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문항의 내용이 자신의 행동과 일치하는가에 대하여 “예” 혹은 “아니오”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예”의 응답수가 개인의 점수가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적 충동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현수(1985)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73$ 이었다(윤재선, 2001에서 재인용).

### 자존감 검사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이영자(1994)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

정적 자존감 문항 5개와 부정적 자존감 문항 5개 등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래 4점 척도인 것을 본 연구에서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7점 척도화 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점수분포는 최저 10점에서 최고 70점 사이이며, 본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문항간 내적일치도는  $\alpha = .719$ 였다.

### 성역할 검사

김득란(1992)의 성역할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남성성 문항 20개, 여성성 문항 20개 및 중립 문항 15개의 총 5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7점: 매우 그렇다)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성역할 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자료를 토대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성성 요인의 20개 문항에서 “과묵하다”와 “털털하다”의 두 개 문항이 제외되었고, 여성성 요인의 20개 문항에서 “싹싹하다”의 문항이 제외되었다. 따라서 남성성 문항 18개와 여성성 문항 19개가 최종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남성성 문항 평정치의 중앙치 4.61과 여성성 문항 평정치의 중앙치 4.95를 토대로 개인의 성역할 유형을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미분화형으로 분류하였다. 즉 남성성 점수가 4.61 이상이고 여성성 점수가 4.95 미만이면 남성성자, 남성성 점수가 4.61 미만이고 여성성 점수가 4.95 이상이면 여성성자, 둘 다 이상이면 양성성자, 둘 다 미만이면 미분화형으로 분류하였다. 남성성

문항간 내적일치도는  $\alpha = .934$ 였고, 여성성 문항간 내적일치도는  $\alpha = .894$ 였다.

### 절 차

연인관계의 질투상황이 묘사된 간단한 시나리오와 이 상황에서 경험할 것으로 생각되는 정서와 대처반응 목록, 충동성 검사, 자존감 검사 및 성역할 검사를 하나로 묶은 질문지 소책자를 심리학 관련 강의 시간에 실시하였다. 질문지 완료에 소요된 시간은 20분 정도였다.

### 자료분석

자료는 SAS 8.2로 분석하였다. 질투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와 대처반응 평정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요인분석을 하였다. 요인분석시 요인 추출방법은 주축분해법을 사용하였다. 공통변량의 시초값은 다중상관

제곱치(SMC)를 사용하였고, 요인구조의 회전은 Varimax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이 요인들 간의 성차를 알아보기 위해서  $t$  검증을 하였다. 그리고 정서, 대처반응, 자존감, 충동성 및 성역할 태도 간의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다. 또한 충동성, 자존감 및 성역할 태도가 정서와 대처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하였다.

### 결 과

#### 1. 질투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와 대처반응

연인관계의 질투상황에서 경험되는 정서들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조사대상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배신감이며, 자존감 손상, 분노, 흥분, 슬픔, 질투심, 우울, 증오, 허탈, 불행감, 무기력감, 복수심, 열등감, 공격감정, 자책감 및 폭력충동이 뒤를 이었다.

표 1. 질투 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의 평균

정서	남자	여자	전체
1. 배신감	6.29(1.08)	6.51(.96)	6.41(1.03)
5. 자존손상	5.91(1.33)	6.38(1.00)	6.14(1.20)
2. 분노	5.68(1.49)	6.13(1.15)	5.90(1.36)
11. 흥분	5.28(1.60)	5.73(1.39)	5.51(1.51)
14. 슬픔	5.45(1.63)	5.54(1.46)	5.50(1.55)
4. 질투심	5.23(1.77)	5.55(1.55)	5.39(1.67)
15. 우울	5.09(1.72)	5.49(1.46)	5.29(1.61)
3. 증오	5.00(1.70)	5.40(1.53)	5.20(1.62)
9. 허탈	5.13(1.72)	4.45(1.60)	5.04(1.66)
8. 불행감	4.62(1.83)	4.39(1.69)	4.51(1.76)
12. 무기력감	4.46(1.85)	4.40(1.67)	4.43(1.77)
14. 복수심	3.88(1.97)	4.77(1.77)	4.32(1.93)
6. 열등감	4.32(1.80)	4.16(1.67)	4.25(1.74)
16. 공격감정	3.82(1.96)	4.05(1.86)	3.93(1.91)
7. 자책감	4.13(1.81)	3.33(1.48)	3.73(1.70)
10. 폭력충동	3.36(2.04)	3.43(1.89)	3.39(1.97)

\* ( )안의 수치는 표준편차. 이하의 표에서도 동일함.



표 2. 질투 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의 요인분석표

정 서	제1요인(분노/공격 정서)	제2요인(상실/우울 정서)
2. 분노	.78	.04
3. 증오	.74	.16
9. 복수심	.66	.16
1. 배신감	.62	.11
16. 공격감정	.59	.20
10. 폭력충동	.57	.17
11. 흥분	.55	.36
5. 자존손상	.49	.09
4. 질투심	.37	.31
12. 무기력감	.12	.75
13. 허탈감	.17	.70
8. 불행감	.23	.70
15. 우울	.26	.67
14. 슬픔	.21	.63
7. 자책감	-.03	.58
6. 열등감	.18	.46
고유치	3.56	3.32
설명변량 %	64%	23%
누적변량 %	64%	87%

표 3. 질투 상황에서 취하는 대처반응의 평균

대 처 반 응	남자	여자	전체
28.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	5.62(1.60)	5.73(1.41)	5.68(1.51)
18. 자기개발을 한다	4.96(1.61)	5.57(1.50)	5.25(1.59)
15. 친구에게 조언을 듣는다	4.83(1.70)	5.24(1.46)	5.02(1.60)
6. A를 만나 자초지종을 듣는다	4.83(1.96)	4.70(1.81)	4.78(1.89)
14. 여행한다	4.24(1.89)	4.79(1.80)	4.51(1.87)
5. A와 B의 관계시작, 경위를 파악한다	4.20(1.97)	4.65(1.80)	4.42(1.91)
3. 상황발생 책임의 원인을 분석한다	4.42(1.83)	4.29(1.71)	4.36(1.77)
2.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3.74(1.78)	4.47(1.78)	4.09(1.83)
31. B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3.98(2.03)	4.06(1.88)	4.01(1.96)
26. A에게 나의 잘못을 묻는다	4.33(1.99)	3.20(1.88)	3.79(2.02)
1. 운다	2.73(1.82)	4.82(1.89)	3.75(2.22)
9. 나와 A가 주고받았던 선물을 없앤다	3.38(2.00)	4.05(1.99)	3.69(2.03)
17. A에게 화를 낸다	2.83(1.99)	4.45(2.10)	3.60(2.20)
30. B에게 A와 나의 관계를 말한다	3.32(2.15)	3.18(1.90)	3.23(2.04)
22. 관계회복을 위해서 노력한다	3.70(1.86)	2.38(1.49)	3.05(1.81)
4. A를 설득한다	3.55(2.01)	2.27(1.40)	2.92(1.86)
7. A에게 보복한다	2.57(1.77)	3.29(1.78)	2.92(1.82)
27. A에게 심리적 고통을 준다	2.35(1.72)	3.48(2.05)	2.88(1.97)
13. A에게 질투를 유발한다	2.53(1.80)	3.21(1.96)	2.87(1.91)
12. A에게 욕을 한다	2.19(1.77)	3.34(2.03)	2.73(1.99)
8. B를 만나 자초지종을 듣는다	2.70(1.92)	2.55(1.72)	2.62(1.83)
32. 나, A, B, 3자가 대면한다	2.72(1.73)	2.46(1.61)	2.58(1.67)
10. A를 때린다	1.75(1.75)	3.15(2.04)	2.43(1.86)
23. B에게 심적인 고통을 준다	2.24(1.60)	2.31(1.63)	2.26(1.61)
29. B에게 화를 낸다	2.21(1.63)	2.21(1.51)	2.19(1.56)
21. B에게 욕을 한다	2.23(1.50)	2.08(1.40)	2.15(1.58)
16. B에게 보복을 한다	1.96(1.39)	2.09(1.41)	2.01(1.39)
24. A와 B 사이를 이간한다	2.02(1.40)	1.91(1.39)	1.96(1.39)
25. A에게 매달린다	2.22(1.50)	1.58(1.04)	1.89(1.33)
19. B를 때린다	1.92(1.51)	1.73(1.17)	1.81(1.35)
20. A에게 협박을 한다	1.67(1.21)	1.96(1.26)	1.78(1.22)
11. B에게 협박을 한다	1.77(1.39)	1.68(1.20)	1.71(1.28)

A: 상대방(자신의 연인), B: 제삼자(경쟁자)

정서에 대한 평정치를 토대로 요인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질투상황에서 경험되는 정서의 요인분석 결과,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제 1요인에는 분노, 증오, 복수심, 배신감, 공격감정, 흥분, 폭력충동, 자존감 손상 및 질투심 등 주로 분노와 공격 감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요인을

분노/공격 정서(9개 문항, 문항간 내적 일치도  $\alpha = .843$ )로 명명하였다. 제 2요인은 무기력감, 불행감, 허탈감, 우울감, 자책감, 슬픔 및 열등감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이 요인에 대해서는 상실/우울 정서(7개 문항, 문항간 내적 일치도  $\alpha = .841$ )로 명명하였다.

한편 연인관계의 질투상황에서 취하게 되는

표 4. 질투 상황에서 취하는 대처반응의 요인분석표

대 처 목 록	요인1 (공격적 대처)	요인2 (문제해결 대처)	요인3 (수동적 대처)
16. B에게 보복한다	.80	.16	-.01
23. B에게 심적인 고통을 준다	.78	.17	-.02
20. A에게 협박을 한다	.77	.11	.08
19. B를 때린다	.76	.19	-.12
21. B에게 욕을 한다	.75	.23	-.00
11. B에게 협박을 한다	.73	.24	-.03
29. B에게 화를 낸다	.71	.27	-.01
24. A와 B 사이를 이간한다	.64	.30	-.06
7. A에게 보복한다	.59	.01	.34
27. A에게 심리적 고통을 준다	.59	.02	.35
12. A에게 욕을 한다	.58	.09	.47
10. A를 때린다	.57	.08	.44
4. A를 설득한다	.15	.73	-.18
26. A에게 나의 잘못을 묻는다	.02	.71	-.01
22. 관계회복을 위해서 노력한다	.05	.70	-.26
6. A를 만나 자초지종을 듣는다	.05	.63	.23
31. B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16	.62	.20
5. A와 B의 관계시작, 경위를 파악한다	.13	.61	.36
32. 나, A, B, 3자가 대면한다	.30	.55	.01
25. A에게 매달린다	.29	.55	-.21
3. 상황발생 책임의 원인을 분석한다	.03	.52	.24
30. B에게 A와 나의 관계를 말한다	.36	.50	.16
8. B를 만나 자초지종을 듣는다	.21	.49	.06
17. A에게 화를 낸다	.46	.06	.51
1. 운다	.12	.11	.45
18. 자기개발을 한다	-.07	.04	.37
13. A에게 질투를 유발한다	-.11	.15	.36
15. 친구에게 조언을 듣는다	.04	.35	.36
9. 나와 A가 주고받았던 선물을 없앤다	-.00	.09	.34
14. 여행한다	.33	.12	.33
2.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15	-.08	.33
28.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	-.01	-.12	.30
고유치	6.57	4.68	2.53
설명변량 %	52%	21%	13%
누적변량 %	52%	73%	86%

대처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가장 많이 취하는 대처반응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 $M=5.68$ )였고, 자기개발을 한다, 친구에게 조언을 듣는다 등이 뒤를 이었다. 상대방이나 제삼자를 공격하는 내용의 대처들은 비교적 적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처반응 평정치를 토대로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대처반응의 요인분석 결과, 3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제 1요인은 제삼자(B)에게 보복한다, 상대(A)에게 협박한다, 제삼자를 때린다 등과 같이 제삼자와 애정상대에게 심리적, 언어적 및 신체적 공격을 가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요인에 대해서 공격적 대처(12개 문항, 문항간 내적 일치도  $\alpha = .923$ )로 명명하였다. 제 2요인은 애정상대를 설득한다, 자초지종을 듣는다, 애정상대와 제삼자의 관계의 시작경위나 과정에 대해서 파악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본다, 제삼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본다 등과 같이 이 상황에 대한 귀인과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내용들이다. 이 2요인에 대하여 문제해결적 대처(11개 문항, 문항간 내적 일치도  $\alpha = .871$ )라 명명하였다. 제 3요인은 운다, 여행한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애정상대와 주고 받았던 선물 같은 것들을 없앤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 등과 같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대처 반응들이며 이 요인에 대하여 수동적 대처(9개 문항, 문항간 내적 일치도  $\alpha = .636$ )라 명명하였다.

## 2. 질투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와 대처반응의 성차

삼자의 갈등적 애정관계에서 경험하는 정서와 대처반응의 성차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서 및 대처반응의 요인별로  $t$  검증을 하였다. 먼저 정서의 평균을 산출하고 성차를 검증하였는데, 이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에서 보듯이 분노/공격 정서의 경우 남자보다는 여자가 유의하게 더 많이 경험하였으나,  $t = -4.29$ ,  $p < .05$ , 상실/우울 정서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대처반응 3개 요인별 평균을 산출하

표 5. 질투 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의 요인별 평균과 성차

	남	여	전체	$t$
분노/공격 정서	4.94(1.10)	5.33(.96)	5.13(1.05)	-4.29*
상실/우울 정서	4.74(1.28)	4.61(1.11)	4.68(1.20)	1.27

\*  $p < .0001$

표 6. 질투 상황에서 취하는 대처반응의 요인별 평균과 성차

	남	여	전체	$t$
공격적 대처	2.13(1.33)	2.59(1.10)	2.36(1.17)	-4.58*
문제해결적 대처	3.63(1.33)	3.20(1.02)	3.42(1.21)	4.18*
수동적 대처	4.00(.89)	4.74(.87)	4.36(.87)	-9.47*

\*  $p < .0001$

고 이들의 성차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별로 *t* 검증을 하였다. 이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여자가 남자보다 공격적 대처를 유의하게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해결적 대처의 측면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동적 대처의 경우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하게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질투 상황에서 성역할 유형에 따라 경험하는 정서와 대처반응

애정의 질투 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와 대처를 성역할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남성성자는 99명(남 56, 여 43), 여성성자는 88명(남 34, 여 54), 양성성자는 162명(남 96, 여 66) 그리

고 미분화 유형은 160명(남 80, 여 80)이었다. 이들 네 가지 성역할 유형의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F* 검증을 실시하였다.

성역할 유형에 따라서 분노/공격 정서가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네 가지 성역할 유형에 따라서 경험하는 분노/공격 정서 수준이 달랐다,  $F(3,515)=6.40, p < .0003$ . Scheffe 방법으로 사후분석한 결과, 미분화 집단과 다른 집단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p < .05$ . 구체적으로 다른 성역할 유형에 비해서 미분화형이 분노/공격 정서를 낮게 경험하였다.

상실/우울 정서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여성성 집단과 다른 집단의 차이가 유의했다,  $F(3,515)=4.47, p < .005$ . 구체적으로 여성성 집단이 남성성 집단, 양성성 집단, 그리고 미분화 집단보다 상실/우울 정서를 가장 크게 경험하였다.

공격적 대처나 문제해결적 대처 양식에 대한

표 7. 질투 상황에서 성역할 유형에 따라 경험하는 정서와 대처반응의 평균

정서-대처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미분화	전체
분노/공격 정서	남자	4.91(1.05)	5.28( .93)	5.08(1.14)	4.64(1.11)	5.13 (1.06)
	여자	5.48(1.12)	5.37( .87)	5.51( .85)	5.07( .99)	
	전체	5.16(1.11)	5.33( .89)	5.26(1.05)	4.86(1.07)	
상실/우울 정서	남자	4.31(1.16)	5.47(1.22)	4.83(1.30)	4.63(1.24)	4.67 (1.20)
	여자	4.64(1.32)	4.84( .91)	4.60(1.67)	4.41(1.06)	
	전체	4.46(1.29)	5.08(1.08)	4.73(1.25)	4.52(1.15)	
공격적 대처	남자	2.07(1.08)	2.19(1.18)	2.21(1.33)	2.06(1.07)	2.34 (1.16)
	여자	2.58(1.18)	2.66( .91)	2.44(1.04)	2.59(1.23)	
	전체	2.30(1.15)	2.48(1.04)	2.30(1.22)	2.33(1.18)	
문제해결적 대처	남자	3.57(1.31)	4.23(1.42)	4.04(1.42)	3.73(1.16)	3.70 (1.21)
	여자	3.47(1.06)	3.78( .97)	3.56(1.05)	3.35(1.00)	
	전체	3.52(1.20)	3.95(1.18)	3.84(1.30)	3.54(1.10)	
수동적 대처	남자	3.50( .71)	4.03( .76)	3.83( .91)	3.48( .84)	3.97 (.88)
	여자	4.19( .84)	4.44( .79)	4.49( .81)	4.05( .74)	
	전체	3.81( .84)	4.28( .80)	4.10( .93)	3.77( .84)	

분석에서는 성역할 유형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동적 대처 양식에서는 성역할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F(3,515)=12.76, p < .0001$ , 구체적으로 사후분석한 결과 남성성 집단과 여성성 집단, 남성성과 양성성 집단, 미분화 집단과 여성성 집단, 미분화 집단과 양성성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즉 남성성 집단과 미분화 집단은 여성성 집단이나 양성성 집단에 비해서 수동적 대처를 유의하게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 4. 질투 상황에서 충동성, 자존감, 성역할 태도, 정서 및 대처반응의 상관

애정의 질투 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와 대처 반응, 그리고 개인차 변인들인 충동성, 자존감 및 성역할 태도들 간의 상호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이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표 8에서 보듯이 성역할 유형 중 양성성과 미분화형은 상관 계산에서 제외되었다. 그 이유는 남성성자의 경우 여성성 점수가 중앙치 이하로

낮고 남성성 점수가 중앙치 이상인 사람들로서, 이들의 남성성 점수를 상관 산출을 위한 수치로 사용하며, 여성성자의 경우는 이와 반대 양식으로 수치를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양성성자와 미분화형의 경우에는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 둘 다 높거나 둘 다 낮은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로 인해 이 두 점수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상관계산에서 이 두 유형이 제외되었다.

앞에서 개관한 선행연구 결과들과 유사하게 충동성은 자존감 및 여성성 점수와 각각 부적 상관을, 분노/공격 정서와 공격적 대처와는 각각 정적 상관을 보였다. 대부분의 변인들 간 상호상관이 유의한 데 비해, 남성성은 자존감, 여성성 및 분노/공격정서와의 상관만 각각 유의하였다. 특징적으로 여성성은 공격적 대처를 제외한 모든 변인들과 상관이 유의하였다.

#### 5. 충동성, 자존감 및 여성성이 질투 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와 대처반응에 미치는 영향

개인차 변인들이 정서와 대처에 어떤 영향을

표 8. 질투 상황에서 충동성, 자존감, 성역할 태도, 정서 및 대처반응의 상호상관

	충동성	자존감	분노/공격	상실/ 우울	공격 대처	문제 해결	수동 대처	남성성
자존감	-.25**							
분노/공격정서	.21**	.01						
상실/우울정서	.06	-.15**	.45**					
공격대처	.14*	-.13*	.47**	.18**				
문제해결대처	-.01	-.08	.16**	.35**	.39**			
수동대처	.07	.03	.40**	.34**	.38**	.24**		
남성성	.00	.55**	.12*	-.03	-.01	.02	-.02	
여성성	-.19**	.42**	.14*	.15**	.04	.16**	.22**	.40**

\*  $p < .01$ , \*\*  $p < .001$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표 8에서 보듯이 여성성은 대부분의 변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데 비해서 남성성은 자존감, 분노/공격 정서 및 여성성과의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다른 변인들과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에, 개인차 변인들 중 충동성, 자존감 및 여성성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정서와 대처 반응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충동성, 자존감 및 여성성이 분노/공격 정서, 상실/우울 정서, 공격적 대처, 문제해결적 대처 및 수동적 대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가 표 9에서 표13까지 제시되어 있다.

먼저 충동성, 자존감 및 여성성이 분노/공격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표 9와 같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동성과 여성성의 주효과가 각각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충동성이 높을수록,  $\beta=.24, p<.001$ , 여성성이 높을수록,  $\beta=.19, p<.001$  경험하는 분노/공격 정서 수준이 높았다. 자존감이 분노/공격 정서에 미치는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2단계에서 투입된 충동성과 자존감의 이원 상호작용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57, p<.05$ . 삼원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5-1. 충동성, 자존감 및 여성성이 분노/공격 정서에 미치는 영향

5-2. 충동성, 자존감 및 여성성이 상실/우울 정서에 미치는 영향

표 9. 충동성, 자존감, 여성성이 분노/공격 정서에 미치는 영향의 회귀분석

단계예측변인	$\beta$	$t$	$R^2$	adjusted $R^2$	$\Delta R^2$	
1	충동성 자존감 여성성	.24 -.01 .19	5.44*** -.21 4.05***	.08	.07	.08***
2	충동성×자존감 충동성×여성성 자존감×여성성	-.57 -.06 -.32	-2.28* -.20 -.84	.09	.08	.01*
3	충동성×자존감×여성성	1.73	1.36	.10	.08	.00

\*  $p<.05$ , \*\*  $p<.01$ , \*\*\*  $p<.001$ . 이하의 표에서도 동일함.

표 10. 충동성, 자존감 및 여성성이 상실/우울 정서에 미치는 영향의 회귀분석

단계예측변인	$\beta$	$t$	$R^2$	adjusted $R^2$	$\Delta R^2$	
1	충동성 자존감 여성성	.04 -.23 .23	.94 -4.86*** 4.10***	.07	.06	.07***
2	충동성×자존감 충동성×여성성 자존감×여성성	-.22 -.58 -.25	-.86 -1.96* -.65	.08	.07	.02*
3	충동성×자존감×여성성	2.78	2.18*	.09	.08	.01*

표 10에는 충동성과 자존감 및 여성성의 세 개인차 변인이 상실/우울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실/우울 정서에 대한 자존감의 주효과가 유의하였고,  $\beta = -.23, p < .001$ , 여성성의 주효과도 유의하였다,  $\beta = .23, p < .001$ . 즉 자존감이 낮을수록 상실/우울 정서를 더 크게 느끼고, 여성성이 높을수록 상실/우울 정서를 더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동성×여성성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고,  $\beta = -.58, p < .05$ , 충동성×자존감×여성성의 삼원 상호작용도 유의하였다,  $\beta = 2.78, p < .05$ .

5-3. 충동성, 자존감 및 여성성이 공격적 대처에 미치는 영향

표 11은 세 개인차 변인들이 공격적 대처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충동성,  $\beta = .12, p < .01$ , 자존감,  $\beta = -.15, p < .01$ , 및 여성성,  $\beta = .12, p < .05$ 의 세 변인 모두가 공격적 대처반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동성이 높을수록, 공격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자존감이 낮을수록 공격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하며, 여성성이 높을수록 공격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 상호작용에서는 자존감과 여성성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고,  $\beta = -.66, p < .05$ , 삼원 상호작용(충동성×자존감×여성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5-4. 충동성, 자존감 및 여성성이 문제해결적 대처에 미치는 영향

표 11. 충동성, 자존감 및 여성성이 공격적 대처에 미치는 영향의 회귀분석

단계예측변인	$\beta$	$t$	$R^2$	adjusted $R^2$	$\Delta R^2$
1	충동성 자존감 여성성	.12 -0.15 .12	2.77** -3.10** 2.55*	.04	.04 .04 .04***
2	충동성×자존감 충동성×여성성 자존감×여성성	.14 -.08 -.66	-.55 -.27 -1.70*	.05	.04 .04 .01
3	충동성×자존감×여성성	1.59	1.22	.05	.04 .00

표 12. 충동성, 자존감 및 여성성이 문제해결적 대처에 미치는 영향의 회귀분석

단계예측변인	$\beta$	$t$	$R^2$	adjusted $R^2$	$\Delta R^2$
1	충동성 자존감 여성성	-.02 -.17 .20	-.52 -3.45*** 4.19***	.04	.03 .04***
2	충동성×자존감 충동성×여성성 자존감×여성성	.04 -.34 -.41	-.16 -1.12 -1.07	.04	.03 .03 .00
3	충동성×자존감×여성성	3.10	2.38*	.05	.04 .01*

표 12는 충동성, 자존감 그리고 여성성이 문제 해결적 대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표이다.

표 12에서 세 변인들 중 자존감이 문제해결적 대처에 대한 유의한 주효과를 보였고,  $\beta = -.17, p < .001$ , 여성성도 문제해결적 대처에 대한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beta = .20, p < .001$ . 즉, 자존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여성성이 높을수록 문제해결적 대처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동성은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원 상호작용들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고, 삼원 상호작용(충동성×자존감×여성성)은 유의하였다,  $\beta = 3.10, p < .05$ .

### 5-5. 충동성, 자존감 및 여성성이 수동적 대처에 미치는 영향

표 13에 제시되어 있는 대로, 수동적 대처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는 충동성의 주효과가 유의하였고,  $\beta = .10, p < .05$ , 여성성의 주효과도 유의하였다,  $\beta = .27, p < .001$ . 즉, 충동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여성성이 높을수록 수동적 대처를 더 많이 하였다. 이원 상호작용 중, 충동성×여성성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고,  $\beta = -.72, p < .05$ , 자존감×여성성의 상호작용도 유의하였다,  $\beta = -1.08, p < .01$ . 그

러나 삼원 상호작용(충동성×자존감×여성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연인관계의 질투 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와 대처반응 및 이 두 변인들에서의 성차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또한 개인차 변인인 충동성, 자존감 및 성역할 태도들이 정서 및 대처반응과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그 영향 관계는 어떤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대학생 523명을 대상으로, 연인관계의 질투 상황을 묘사한 짧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정서와 대처반응들을 7점 척도에 평정하게 하였다. 여기서 얻어진 자료를 토대로 정서와 대처의 요인분석, 요인별 성차를 검증하였다. 또한 충동성, 자존감 및 성역할 검사를 실시하여 변인들 간의 상호상관 및 개인차 변인들이 정서와 대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요인분석의 결과를 보면, 정서의 경우 애정의 질투상황에서는 크게 두 종류의 정서 즉 분노와 흥분 등의 분노/공격 정서와, 슬픔 및 자책 등의 상실/우울 정서를 함께 경험하는 것으로 나

표 13. 충동성, 자존감 및 여성성이 수동적 대처에 미치는 영향의 회귀분석

단계	예측변인	$\beta$	$t$	$R^2$	adjusted $R^2$	$\Delta R^2$
1	충동성	.10	2.19*	.07	.06	.07***
	자존감	-.06	-1.17			
	여성성	.27	5.72***			
2	충동성×자존감	.12	.48	.09	.08	.02**
	충동성×여성성	-.72	-2.45*			
	자존감×여성성	-1.08	-2.86**			
3	충동성×자존감×여성성	.14	.11	.09	.08	.00



타났다. 질투는 원래 단일한 감정이 아니라 공포, 분노, 슬픔 및 증오 등과 같은 여러 감정의 복합체(White, 1980)라는 선행 연구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조사대상들은 애정의 질투가 유발되는 상황에서 분노/공격 정서와 상실/우울 정서의 상반되는 정서를 함께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처반응의 요인분석 결과, 공격적 대처, 문제해결적 대처 및 수동적 대처의 세 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 애정의 질투상황에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대처를 하지만, 그 대처반응들은 크게 이 세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질투 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와 대처반응의 성차를 분석한 결과, 분노/공격 정서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상실/우울 정서에서는 남녀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남자는 여자보다 문제해결적 대처에 더 집중하는 반면, 여자는 남자보다 공격적 대처와 수동적 대처를 유의하게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질투상황에서 남자들이 격노와 폭력으로 반응하고, 여자들이 우는 것과 같은 수동적 반응을 한다는 Clanton과 Smith(1977)의 결과들 중에서 여자가 수동적 반응을 더 많이 한다는 부분과 일치하였다. 선행 연구 및 일반적 통념과는 달리 본 연구의 결과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공격적 대처반응을 유의하게 더 많이 한다는 점은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삼자간 갈등적 애정관계의 시나리오 내용이 심각한 갈등보다는 상당히 미약한 수준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대처반응들 중에서 공격적 대처가 분노표출이나 언어적 공격 등 대체로 여성들이 보이기 쉬운 반응 위주로 미약하게 제시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애정의 질투 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와 대처반응에 대해서 성역할 유형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양성성 집단에서 삼자간 갈등적 애정관계에서 기대되는 대처행동 중 ‘인과관계를 살핀다’거나, ‘설득한다’와 같은 문제해결적 대처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양성성이 사회 적응적 유형이라는 기존 연구(Brems & Johnson, 1987; Harrington & Anderson, 1981; Heilbrun, 1981; Schneider & Becker-beck, 1989)들과 일치한다.

한편, 표 7에서 보았듯이 여성성자가 분노/공격 정서, 상실/우울 정서, 공격적 대처, 문제해결적 대처 및 수동적 대처 등 다섯 가지 요인 모두에서 다른 성 역할 유형자들에 비해 평균이 가장 높은 경향이 있다. 이는 여성성 자체가 정서성(표현성)과 관계성(친교성)으로 대표되는 성역할 특징이라는 일반적 성역할 정의와 일치된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는 여성성자가 남성성자에 비해 비공격적 정서와 비공격적 행동을 더 많이 보이지만, 질투라는 관계위협적인 특수 상황에서는 그 반응도 다소 특수하게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즉 여성성자들이 다른 성역할 유형자들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인간관계에 더 민감하고, 따라서 질투상황에서 관계에 대한 위협을 다른 성역할 유형자들에 비해 더 크게 지각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표 7은 질투 상황에서 여성성자들이 다른 성역할 유형자들보다 특히 정서적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또한 관계의 복원을 위해서 다양한 행동적 대처를 더 많이 시도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정서와 대처반응, 충동성, 자존감, 그리고 성역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충동성은 분노/

공격 정서 및 공격적 대처행동과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충동성과 공격성간 정적 상관이 있다는 선행 연구들(정태연, 1992; Barrat & Patton, 1983; Eysenck, 1976; Hynan & Grush, 1986; Messer, 1976; White et al., 1992)과 일치한다. 또한 자존감이 상실/우울 정서와 공격적 대처반응에서 역의 상관을 유의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상실/우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고, 또한 공격적 대처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자기가치감이 저하되어 있어 무능력감과 긴장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며, 어려움을 참는 인내력이 부족하고, 우울정서를 더 많이 느껴 우울감을 피하기 위해 폭력과 같은 부적절한 방식의 범죄행동과 상관이 높다는 결과들과 일치한다(최미숙, 1993; O'Keefe, 1998; Rosengerg, 1965). 이는 질투 상황에서 낮은 자존감이 폭력 등의 적절치 못한 행동을 예언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경험정서와 대처반응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두 가지의 경험정서와 세 가지의 대처반응들 간 정적 상관이 모두 유의하였다. 이는 애정의 질투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복잡한 정서상태로 흔히 분노/공격 정서의 경험이 공격적 대처행동을 예언하고 상실/우울 정서가 수동적이고 회피적인 대처행동을 예언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애정의 질투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대처들을 복합적으로 시도한다고 해석된다.

한편 상관분석 중에서 남성성이 분노/공격 정서와 상관을 보였지만, 남성성과 공격적 대처, 문제해결적 대처 및 수동적 대처와는 모두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서 여성성은 공격대처

와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변인들과는 모두 상관이 유의하였다. 이 결과에 제한해서 본다면, 성역할 태도와 공격적 대처는 무관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남성성이 공격성과 유관하다는 선행 연구(조혜자, 2001; Barry et al., 1976; Deaux & LaFrance, 1998; Kaplan & Sedney, 1980)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개인차 변인들이 애정의 질투 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와 대처반응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한 결과들을 요약하면, 충동성은 분노/공격 정서, 공격적 대처 및 수동적 대처에 영향을 주었고, 여성성은 모든 유형의 정서와 대처에 영향을 미쳤으며, 자존감은 상실/우울 정서, 공격적 대처 및 문제해결적 대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중 특히 여성성의 경우, 상관분석에서 여성성과 공격적 대처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지만, 회귀분석의 결과에서는 여성성이 공격적 대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 포함된 공격적 대처의 내용들이 대체로 언어적 공격 등의 비교적 미약한 수준의 공격들을 포함하고 있는 데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질투 상황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대개 정서, 사고 및 대처를 별개로 구분하지 않고 함께 제시하거나 혹은 개개 반응들을 나열한 것들이 많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애정의 질투 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와 대처를 대표적인 내용들과 아울러 요인분석을 통해 소수의 요인들로 간명하게 설명하였다. 한편 애정의 질투 상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공격적인 대처를 많이 사용한다는 결과와,

여성성이 공격적 대처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기존 연구와 상반된 것으로서, 지금까지 남성이 더 공격적이라는 통념에 비추어, 질투 상황에서만 여성이 더 공격적인지 혹은 전반적으로 여성의 공격성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인지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실제의 질투 상황을 다룬 것이 아닌 가상적 시나리오 상황에서 경험하거나 취할 수 있는 정서와 대처반응을 다루었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실적 정서나 대처를 심도있게 포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시나리오가 간략하게 제시되어서, 애정의 질투 상황이 충분히 부각되지 못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삼자간 애정의 갈등수준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각 수준별 정서와 대처를 측정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대학생들이었는데, 대학생들은 기혼자들 및 보다 더 나이든 성인들에 비해서 이성관계 개입수준이 낮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실제 삼자 갈등적 질투 상황을 경험한 성인들 및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거나 혹은 질투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인차 변인들을 다루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성역할 검사에서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의 중앙치를 기준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므로, 원점수가 필요한 상관분석이나 회귀 분석에서 양성성자나 미분화 유형으로 분류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추후에는 이 부분에 대한 방법적 개선의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의 질투 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와 대처행동들에 대해서 충동성, 자존감 및 여성성의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전체적으로 설명변량이 그리 높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이 외의 다른 설명력이 높은 변인들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김교현 (2004). 남자의 질투와 여자의 질투: 연인관계에서의 질투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4), 771-792.
- 김득란 (1992). 양성적 남녀의 성역할 반응양식과 관련 변인 분석.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법원 행정처 (1995). 범죄백서.
- 윤재선 (2001). 분노조절 훈련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충동성에 미치는 효과. 울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자 (1994).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구철 (2000).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한 대학생 연애평력의 예측기대변인. 삼육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태연 (1992). 충동성과 공격성이 좌절상황에서의 사회 정보처리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혜자 (2001). 성 고정관념: 왜 끈질긴가? 2001년도 여성심리학회 추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15.
- 통계청 (1989). 인구동태 통계연보.
- 통계청 (1996). 인구동태 통계연보.
- 최미숙 (1993).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재원, 허태균, 한성열 (2004). 질투심의 성차: 진화적 기제인가 사회적 구성물인가? 2004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및 심포지움 자료집. 13-20.
- 홍대식 (2002). 연애와 결혼 심리학. 서울: 청암 미디어.
- Anderson, K. L. (1986). Androgyny, flexibility, and Individualism. *Journal of Personality*, 50, 265-278.
- Bakan, D. (1966). The duality of human existence. In A. G. Kaplan & M. Sedney(Eds.), *Psychology and sex roles. An androgynous perspective*. Boston: Liddle, Brown and Company.
- Barratt, E. S. (1985). Impulsiveness subtraits: Arousal and information processing. In J. T. Spence & C. E. Izard(Eds.), *Motivation, emotion and personality* (pp.137-146). Amsterdam: Elsevier Science.
- Barratt, E. S. & Patton,, J. H. (1983). Impulsivity: Cognitive behavioral and psychophysiological correlates. In M. Zukerman. (Ed.), *Biological bases of sensation seeking, impulsivity and anxiety* (pp.77-122). Hillsdale, NJ: Erlbaum.
- Barry, H., Josephson, L., Lauer, E., & Marshall, C. (1976). Agents and techniques for child training: Cross-cultural codes 6. *Ethnology*, 16, 191-230.
- Bellavial, G., & Murray, S. (2003). Did I do that? self-esteem-related differences in reactions to romantic partners' moods. *Personal Relationship*, 10(1), 77-95.
-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 Berkowitz, L. (1974). Some determinants of impulsive aggression: Role of mediated associations with reinforcements for aggression. *Psychological Review*, 81, 165-176.
- Berscheid, E. (1983). Emotion. In H. H. Kelly, E. Berscheid, A. Christensen, J. H. Harvey, T. L. Huston, G. Levinger, E. McClintock, L. A. Peplan & D. R. Peterson(Eds.), *Close relationships* (pp. 110-168). New York: Freeman.
- Brems, C., & Johnson, M. E. (1989). Problem-solving appraisal and coping style: The influence of sex-role orientation and gender. *The Journal of Psychology*, 123, 187-194.
- Bringle, R. G., & Evenbeck, S. (1979). The state of jealousy as a dispositional characteristic. In M. Cook & G. Wilson (Eds.), *Love and attraction*, 201-204. Oxford: Pergamon Press.
- Bryson, J. B. (1977). Situational determinants of the expression of jealousy. In H. Sigall (Chair), *Sexual jealousy*. Symposium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an Francisco.
- Buunk, B. (1982). Anticipated sexual jealousy: Its relationship to self-esteem, dependency, and reciproc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8, 310-316.
- Buss, A, H.(1966). The effect of harm on subsequent aggression. *Journal of Experimental Research in Personality*, 1, 249-255.
- Buss, D. M., Larsen, R., Westen, D., & Semmelroth, J. (1992). Sex differences in jealousy: Evolution, physiology, and psychology. *Psychological Science*, 3, 251-255.
- Clanton, G., & Smith, L. G. (Eds.), (1977). *Jealous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Deaux, K., & LaFrance, M. (1998). Gender. In D. Gilbert, S. Fiske, & G.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4th Ed.)*(pp.788-827). NY: McGraw-Hill.

- DeSteno, D. A., Bartlett, M. Y., Braverman, J., & Salovey, P. (2002). Sex differences in jealousy: Evolutionary mechanism or artifacts of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5), 1103-1116.
- Eysenck, S. G., & Eysenck, H. J. (1977). The place of impulsiveness in a dimensional system of personality descript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6*, 57-68.
- Harrington, D. M., & Anderson, S. M. (1981). Creativity, masculinity, femininity and three models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744-757.
- Heilbrun, A. B., (1981). Gender differences in the foundational linkage between androgyny, social cognition, and compet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216-229.
- Kaplan, A. G., & Sedney, M. A. (1980). *The Psychology and Sex Roles: An Androgynous Perspectives*. Boston: Little, Brown.
- Mathes, E. W., Adams, H. E., & Davies, R. M. (1985). Jealousy: Loss of relationship rewards, loss of self-esteem, depressions, anxiety, and ang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552-1561.
- Neju, A. M., & Neju, C. M. (1987). Psychological distress, problem solving, and coping reactions: Sex role differences. *Sex Roles, 16*, 205-214.
- O'Heron, C. A., & Orlofsky, J. L. (1990). Stereotypic and nonstereotypic sex role trait and behavior orientations, gender identity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134-143.
- O'Keefe, M. (1998). Factors mediating the link between witnessing interparental violence and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3*.
- Parsons, T., & Bales, R. E. (1955).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In A. G. Kaplan & M. Sedney(Eds.), *Psychology and Sex Roles. An Androgynous Perspective*.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 Reiss, I. L. (1986). A sociological journey into sexua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233-242.
- Pinto, R. P., & Hollandsworth, J. G., Jr.(1984). A measure of possessiveness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 273-279.
- Ravinder, S. (1987).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Garnets and Pleck's sex role strain analysis. *Sex Roles, 16*, 165-179.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child*. N. 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1986). Self-concept from middle childhood through adolescence. In J. Sals & A. G., Gredwald(Eds.),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self, Vol. 3*, Hillsdale, NJ: Erlbaum.
- Schneider, J. F., Schneider-Duker, J. F., & Becker-beck, U. (1989). Sex role and social behavior: On the relation between the Bem Sex Role Inventory and the SYMLOG Behavior Rating Scal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9*, 471-479.
- Schwartz, K., & Robin, C. J. (1987). Psychological androgyny and ego development. *Sex Roles,*

- 16, 71-81.
- Sedikides, C., Oliver, M. B., & Campbell, W. K. (1994). Perceived benefits and costs of romantic relationships for women and men: Implications for exchange theory. *Personal Relationships, 1*, 5-21.
- Sharpsteen, D. J. (1993). Romantic jealousy as an emotion concept: A prototype analysi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10*, 69-82.
- Sharpsteen, D. J. (1995). The effects of self-esteem threats and relationship threats on the likelihood of romantic jealous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12*, 89-101.
- Sharpsteen, D. J. & Kirkpatrick, L. A. (1997). Romantic Jealousy and Adult Romantic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3), 627-640.
- Shaw, J. S. (1982). Psychological androgyny and stressful life ev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145-153.
- Shettel-Neuber, J., Bryson, J. B., & Young, L. E. (1978). Physical attractiveness of the "other person" and jealous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 612-615.
- Smith, R. E. Pine, C. J., and Hawley, M. E. (1988). Social cognitions about adult female victims of female sexual assault. *The Journal of Sex Research, 24*, 101-112.
- White, G. L.(1981). Jealousy and partner's perceived motives for attraction to a rival.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4*, 24-30.
- White, G. L.(1982). A Model of romantic jealousy. *Motivation and Emotion, 5*, 295-310.
- White, J. L., Moffit, T. E., Caspi, A., Needles, D. J., & Stouthamer-Loeber, M. (1992). Measuring impulsivity and examining its relationship to delinquenc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2), 192-250.
- White, G., & Mullen, P. (1989). *Jealousy: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strategies*. New York: Guilford Press.

논문접수일: 2006년 7월 25일

수정논문접수일: 2006년 11월 10일

게재결정일: 2006년 11월 16일

# Emotion and Coping in Romantic Jealousy for Different Sexes

## -The Influence of Impulsiveness, Self-esteem and Sex-role

Soo-Kyoung Lee

Kyonggi University

Hye-Ja Ka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1) emotion and coping in romantic jealousy for different sexes (2) correlations among impulsiveness, self-esteem, sex-role, emotion and coping (3) the effects of impulsiveness, self-esteem, and sex-role on emotion and coping. Participants were 523 undergraduate students. They were administered with questionnaires about brief scenario (about romantic jealousy), emotion, coping, impulsiveness, self-esteem, and sex-role. The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on the data were administer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Firstly, emotions in romantic jealousy were categorized into two factors (anger/aggression and loss/depression). And the copings in romantic jealousy were categorized into three factors (aggressive coping, problem solving coping, and passive coping). Secondly, women experienced more anger/aggressive emotions than men, and they used both aggressive and passive coping strategies more than men. Thirdly, the correlations between impulsiveness and anger/aggression, impulsiveness and aggressive coping were significant, respectively. Finally, anger/aggression emotion and aggressive coping were influenced by femininity. More discussions about these results and further research ideas were suggested.

*Key words* : Romantic Jealousy, Emotion, Coping, Sex differences, Impulsiveness, Self-esteem, Sex-role